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論說

佛國官吏의示威運動

一

巴里十四日電은 佛國官吏의示威行列이잇슴을 來報하엿다 그는 官吏들이그俸給을物價의 高低에應하야 上下하기를要求함이엿다 그示威行列은 警官隊와衝突되어 三百餘名의檢束者를내게되엿다한다. 佛國의財政이極히紊亂하여저서 貨幣의變動이甚한故로 그貨幣로써俸給을一定하여밧게되는俸給生活者들이慘澹한生活苦를 맛보게될것은 勿論이다 그럼으로그들이猛然히일어나서 그要求의貫徹을企圖하기爲하야 非常한手段을取하게된것은 佛國의現狀에鑑하야 不得已한일이라고하겟다

二

그런대 그正當한要求를表明하려는 示威行列이 警官隊와衝突되엿다는것은 무슨까닭인가? 그는 勿論政府에서高壓的政策을取하게되여 그行列을沮止하려고함에由來한것일터이니 官吏의同盟罷業權을主張하던「브리안」首相의政府의處置로하여서는 자못不可解할것이다 官吏라는것은 國家의使用人이니 示威運動을行하야 그經濟的要求를貫徹하려고하는것을 一律로不可라하야 그것을制止하려고하는것은 何等의理由가업는것이다 官吏도그下級된者에잇서서는 그生活條件과活動條件이 勞働者와달음이업나니 國家를使用主로보고 官吏를被傭人으로보면 그사이에는經濟的關係에 지나지못하는터인즉 그들이그生存을圖하기爲하야努力하여야할것은 참으로當然한일이라고하겟다

三

下級官吏는 大槪그들이서로團合하야 그利益을圖하게되나니 그들은그生活의環境에依하야 自然히勞働者와同一한心理를가지게되는것이다 그리하야 實際로生産에從事하고實際로管理에從事하는勞働者와下級官吏가現制度에對하야不平을가지고抗爭하게된다는것은 매우容易치안흔問題이니 佛國의狀態가아와가티되엿다는것은 우리의注目不已할바이다 戰後에잇서서 獨逸은極度의混亂狀態에빠지게되엿섯다가 지금은國內狀態가매우改善되게되엿다 그리하야 사람들로하여금中歐에잇서서의資本主義의安定을말하게하는바이엇섯다 그런데지금은戰勝國되는佛國이財政難으로因하야 國內狀態가매우險惡하게되여 首府에서騷動을보게되고 더군다나國家에서가장信賴하는官吏까지도 이러나서罪의輕重을뭇게되엿다

四

佛國은戰爭에익이고 또殖民地와戰爭을繼續하기爲하야 莫大한軍備를支出하게되엿다 그結果는 財政의大破綻을招來하게되엿스니 帝國主義의煩悶이 또한그點에잇다고볼수잇다 巴里騷動은 또佛國貨幣의暴落을招來하게되엿다 그리하야十六日의巴里電은 또法貨의爲替時勢가다시暴落한바잇슴을傳한다 이와가티되여 佛國의財政狀態가恢復되지못하고 더욱混亂되여가면 一時的安定을보게되엿다는 中歐에잇서서의資本主義도 매우疑問이라고보지아니할수업나

顏氏攝政內閣 二十日에正式成立

(北京十八日發) 時局善後策에對하야奉天直隸兩派의巨頭會議는十八日天津에서開한結果四月二十日曹錕氏를大總統으로一時復職을식혀다가卽日正式으로辭職을聲明케하기로決定한後內閣問題에就하야는顏惠慶氏로서攝政內閣을組織케하야 總理顏惠慶 外交總長梁士詒 財政總長王荊江 司法總長王寵惠 陸軍總長齊燮元 海軍總長杜錫珪 農商總長張心瀲 敎育總長蔡元培 諸氏를任命하고 또한右新內閣은正式會議를召集하야大總統을選擧할터이더라

段氏政府遂倒潰

(北京十八日發) 時局이急轉하야段祺瑞氏의執政府는倒潰하고顏惠慶氏가代身하야攝政內閣을組織하기로되엿더라

賈內閣總辭職

(北京十八日發) 今日賈德耀內閣은總辭職을하엿더라

時局收拾會議와 段執政의至急通電

(北京電) 復職한段執政은十七日第一回의正式會議를開하고進退에對하야協議한結果張作霖、吳佩孚、孫傳芳、閻錫山等에對하야時局收拾會議를爲하야至急히代表를北京으로派遣하라고打電하엿더라

文武官의異動과 ◇……不安定한人心

(東京電) 江西督辦方本仁은逃走하엿슴으로鄧澤如는南湘에赴任하엿스나文武官의異動이決定되지안음으로人心은不安한모양인바大體가妥協平和主義로終始될모양임으로結局平穩裡에解決되리라더라

吳氏遂上京乎 張의督促으로

(上海十九日發) 吳佩孚는豫定보다一日을先하야十八日에生日宴을開하엿는바此는張宗昌으로부터政局收拾을爲하야上京을督促한까닭이라傳하더라

訪日丁抹機 行衛不明

(上海十九日發) 丁抹訪日飛行機는十八日午前八時廣東을出發하야無事히午後二時二十分에福州를通過하엿스나其後는行衛가不明이되야今朝에이르기까지消息이不明한데大槪逆風으로浙江省內에不時着陸한것이라고觀測하더라

雙橋無電無事 損害도毫無

(東京電) 外務省着電에依하면國軍으로因하야破壞되엿다고傳하든雙橋無電은何等의損害를受치안코無事하더라

英、伊對『아』交涉과 佛國側의憂慮太甚

(나우엔十八日發) 英國政府는『아비시니아』에關하야英、伊交涉을하는中이라고佛國政府에通牒하엿는데右交涉은佛國의憂慮와不安을誘發하는中으로卽英、伊兩國이北阿弗利加에서佛國의旣得權과野心과를妨碍하야新勢力範圍를確定코자하는것이라고佛國側에서는信한다더라

重要政策討議中 主義者와警官衝突

(나우엔十八日發) 獨逸首相『루텔』內相『퀴쓰』藏相『라인홀드』三氏는獨逸聯邦政府와各聯邦諸州와의間에在한重要한政治財政諸問題를討議키爲하야『바와리아』州政府와會議를하엿는바右會議中八名의共産主義者는會議室에闖入하려하엿스나警官과衝突하야目的을達치못하엿더라

政界革新을目標로 後藤子新黨樹立着手 普選實施를압헤두고

(東京電) 普選實施를압헤두고政治의倫理化를主張하야一千五百萬의新有權者에對하야宣言한政界의惑星後藤新平子는幾者若槻、田中、床次等三巨頭와會見한以來關西方面에日演旅行을繼續하야政界革新을宣傳하고다니던바機運이漸次釀成된것을察知하고今回政界革新을爲하야新黨樹立에着手하기로하고十八日永田秀次郞氏를自邸에招致하야種種協議하얏다、그래서新政黨에必要한萬端의事項은普選에依한總選擧施行時에決定하기로하고現下는同志를糾合키爲하야普選準備會를設置하야關係衆務를處理케하고如斯大方針下에一步를進하기로하얏더라

園公의入京要務 元老制度其他

(東京電) 西園寺公은二十日午後五時四十三分東京驛着列車로入京하게되엿는데公의入京한다는主要要件은公이오래興津에잇서天機를奉伺하지못하엿슴으로參內하야天機를奉伺하고同時에最近各方面에서喧傳하는元老下問에對하야將來其範圍를如何히한다하는問題를解決하라고한것으로觀測된다將來國家最高政務下問의範圍에關하야는此其總理大臣、貴衆兩院議長、樞密院議長、內大臣等으로擴大하엿스면如何할가傳하나敵一轉하고唯一의元老인西園寺公도漸次老衰함과共히下問에對하야果然判斷을不誤하야職務를負할수잇슬지疑問이다此에關하야는西園寺公도恒常恐懼한바잇고又西園寺公後의事를只今부터用意하야두어야할것이라하야今回의入京을機會로此等에對하야도豫히要路者와協議를할듯하다園公은下問의範圍에對하야는範圍를擴大치안코單히內大臣으로서하겟다고말한듯하고一般도亦此意見에一致한模樣이다更히此機를利用하야當面의政局에對하야도活動이開始될것은明白한대目下公은政局의安定을第一義로하는實情임으로恐컨대諸般의政情은現政府에有利히解決되게되겟고어느意味에잇서園公은當分現政府의支持者라고보아無妨하겟다고觀測되더라

義州蠶業組合 桑苗强制配植 寸土업는貧民에까지

義州郡一帶農民들은同郡內에잇는蠶業組合의桑苗配付方式이너머나强迫的이요壓制的이라하야자못不平과非難이藉藉하다는바이제事實을探聞한則同蠶業組合은一般農民에게農蠶業獎勵로生産을增進식히는同時生活上安定을企圖키爲하야數年前으로부터同組合員과各面職及區長이同組合의一部事業인桑苗를各戶에强迫的으로配植케한것은事實인바더욱今年度의桑苗配付方式은一層强迫的이요또한各個農民들의生活程度에考察도업시寸土도업고朝夕이末由한貧農小作人들에게까지五十株乃至二百株를壓迫的으로配付하야他人의土地를借用하야서라도期於히植付하라한다하야一般農民들은不平과非難이藉藉하다더라(義州)

庶務部委員李宜鎬 編輯部委員李□□ 研究部委員申鉉哲(咸平)

月村小作事件 安岳署에서取調中

安岳郡大杏面月村里小作人一同은同舍音을相對로當局에告訴를提出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同舍音金壽永은數日前安岳警察署에서引致取調中去十六日에는小作人三十二人이入邑하야地稅加徵事件으로取調를맛고其外小作人二十名도不日間또取調할바를豫定이라는데前記小作人中에漂流의길을떠난사람도몃名이라더라(安岳)

勞働團體 勤勞會創立 十四日盈德에서

盈德邑靑年會館內에서는當地勞働者七十餘名이會集하야去十四日勤勞會創立總會를開催한바入會金每人五十錢月料金每人二十五錢式貯蓄하야日後事業에充當하기로하고左記諸項을決議하얏다고

△決議

一、勤儉貯蓄 一、勞銀制限
一、夜學獎勵 一、哀慶相扶
一、交誼敦睦

△任員

會長李尙術 副會長□□□ 會計部長李圭仁 庶務部長□□ 書記申世雨 社交部長□□□ 審査部長□□五 通信部長□□ □柱煥外各部幹事九名(盈德)

木浦油工罷業에 物質同情禁止 治安妨害란口實로

木浦製油工百五十人이同盟罷業을斷行하야許多한犧牲者까지내여가며四個月以上의持久戰을한다함은累報한바어니와그날부터그날을僅僅히經過하는苦로로서數月을繼續休業하얏스니그들의悲慘한生活은人類의本性이남어잇는者로야누가同情의눈물을흘리지안할수업는現狀임으로咸平『必是同盟會』가總會席上에서物質同情하기를決議하고不日內로보내려準備하던中去十六日同會幹部張玎鉉氏를警察署에서召喚하야治安妨害라는口實로物質同情조차禁止하얏다고一般은그無理함을憤慨한다더라(咸平)

綱領改修

十六日에咸平警察署로부터咸平必是同盟會幹部張玎鉉氏를召喚하야文句가不穩하다는口實로綱領中第一項『我等은解放運動의第一線에立하야新朝鮮의建設을期함』이라함에對하야新朝鮮을新社會로變更하고第二項은全部削除를命하얏다더라(咸平)

蔚山郡斗西 九良講習閉門

蔚山郡斗西面九良講習所는長遠한歷史를가젓슬뿐아니라育英界에貢獻이莫大하던바去月末日頃에不得已한事情으로閉門하엿다는데모든原因은物質上關係라하며現下四十餘의學生은다시就學키不能하야失巢의鳥와가티彷徨하게되엿다고(彥陽)

美羅女性創立 莞島所安面에서

全南莞島郡所安面美羅里에서는有志諸氏가數月前부터當地女性團體組織에努力하던中去十二日當地美央學院講堂內에서展開組織의意味深長한開會辭를비롯하야開催된바會員은三十餘名이會集하야美羅女性會라하고會則制

新興文藝를建設코저 組織된咸平文藝會

新興文藝研究의趣旨로咸平文士諸氏가文藝會를組織하야去十六日時代日報咸平支局內에創立總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고

△綱領

一、우리는在來의부르조아獨占인文藝를否認하는同時民衆本位의新興文藝를建設하기로함 二、우리는無産階級의文藝運動者를養成하며新生命이潑溂하는文藝로써民衆에게階級意識을鼓吹하며戰線을啓蟄하기로함

△決議

一、第一事業으로少年少女懸賞文藝作品을募集할것 一、每月에一回式文藝雜誌를發行할것 一、文藝에關한圖書를購入하야一般會員에게閱覽식힐것

△任員

公州夜櫻修飾

忠南公州電氣會社에서는例年當地櫻山公園或錦江入口櫻林에電燈을架設하야夜櫻을보게하든바今春에는去十七日부터電燈十燭光으로三百個를錦江入口櫻花에點綴하야同十八日부터는五日間夜櫻을보게되엿다고(公州)

海州第一公普 不遠新築工事

海州第一公立普通學校에서는現在의校舍가매우狹窄하야再昨年부터其校舍를新築코저市民大會까지開催하얏던바其後잘進行되야其基地는北本町劉琮鉉氏의所有土地로定하고去十一日其基地에對한計劃測量이잇섯다는데不遠에工事에着手하야今年內로落成케하리라고(海州)

定委員二人을定하야來臨時總會에通過하기로하얏다고(長興)

禮山市場改良 各處位置變更

昨年夏間부터禮山繁榮會에서는市民大會를開催하고市區改良을爲하야其間努力한結果寄附金等이豫定과가티取合된바數日前부터市區改築에着手하야着着進行中이라는데米穀市는柴炭場으로柴炭場은雞卵亭으로魚菜市場은舊市場으로果物市場은前驛附近으로雜貨市場은前과如히하고牛市場은現市場越便으로移轉하야露店其他建物은方今建築中이며白木屋에서米屋으로道路를貫通하기로工事中이라더라(禮山)

圓滿解決外지 工事中止要求 東津水組被害民決心

東津水利組合과被害民間에圓滿한解決이업시組合側에서工事만進行함으로被害民相助會에서는工事中止를要求하다가毆打까지當하얏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本月十七日被害物買受價格標準額發表가잇섯다는데此에對하야被害民相助會員某氏談에依하면被害物各種을枚擧키難하나畓一斗落時價三百圓以上을九十圓內外로買收코자하니此는讓渡가아니라寄附에不過하며組合은將來莫大한利益이有할事業이나우리被害民은安堵地를떠나流離할境에至하얏스니組合은同情키는커녕反히被害物價格外지時價三分一以內로支拂코자함은實로組合의趣旨를難解인바圓滿한解決이잇기까지工事中止를要求하기로決心하엿다고한다(任實)

●尙州勞親例會 慶北尙州勞働親睦會에서는去十日月例會를開催하고左記各項을決議하얏다고

△決議

一、不良會員調査의件 二、反動分子吳鴻九에게警告文을發送하는同時에質問할일 三、脚戱大會開催의件

△質問委員

全潤一 申相龍 具資燾 □柄五 林學祐 金卜術 朴龍瑞 朴明五 崔鳳先 朴石圭 申容均 裵仁洙 全成根 李元五 朴五德

◇二運青年大會 去十日慶南巨濟島二運靑年會第六回定期大會에서는下記各項을決議하엿다더라

△改選委員

執行委員長尹一 金光 李乙 李偵 李柱勳 尹鳳根 李□ 洙 金商五 權奎亨 玉致洪 滕貞侯 池漢明 朴廷德 金□

全北記者大會 無賃乘車區域

全北記者團主催로來四月二十四五兩日間群山公會堂에서第二回全北記者大會를開催한다함은累報한바와갓거니와同大會準備委員會에서는會期의臨迫함을따라諸般準備에奔忙中인대特히山間部參加記者의便宜를圖키爲하야全北鐵道株式會社에無賃乘車를交涉한結果同社의快諾을어더左記地域의參加員에限하야同社에서無賃乘車券을發付하리라더라(全州)

◇無賃乘車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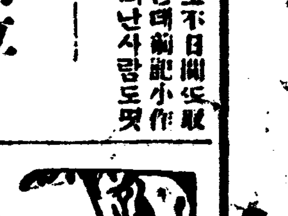
任實 南原 長水 長溪 鎭安 龍潭

烏致院 市區擴張案 不遠에發表

忠南烏致院은忠南北道合併說과道廳移轉說의背景下에忠南烏致院은地理上으로忠淸南北道의中央임으로將來에는交通의便利함으로보아大都市가될것이라하야近年에는各處에서移住民이輻湊하야土地及建物의價格이比前하야四五倍나暴騰하나顧買者업다한는바去二月六日로京南鐵道會社에서烏致院大川間鐵道敷設認可申請을提出한後로는烏致院市街의人心이더욱緊張하야집을따라面當局에서는市街를改正하는同時市區를擴張코자西面新洞里及內倉里二個所를烏致院面으로編入코자建築交涉中인바西面協議員들은絕對反對中임으로結果如何는未知나前記二個里의居住民들은烏致院面으로編入되는것을多數希望하는狀態인즉不日內로發表되리라더라

博川幼園創設

平北博川邑은千餘戶의都市로于今幼稚敎養機關이업슴을慨歎하던바去月三十日當地靑年會館에有志諸氏가會合하야幼稚園創設을議決한後期成委員을選定하야方今義捐金募集에努力中인데成績이良好하야千餘圓에達하엿다하며幼稚園創設은陰四月內로할터이라하며場所는靑年會館으로定하엿다더라(博川)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作者氏名明記

朝鮮의兒童

◇物質의破滅을當한 朝鮮의兒童은 二重으로 精神的苦痛까지 痛切히感할것이다

◇그들은 旣히物質에 飢하지오랜려이지만 智識慾은饑渴되여

◇그러나全朝鮮을通하야 校門을通하려는者多하다 校舍不足으로 그學生을 全部收容치못하니 朝鮮兒童의不幸이 엇더케 여긔에 더할것이잇스랴

◇그들의前途는 참혹히暗澹한 우리의將來의子孫의 中에잇다 敎育問題를 解決할만큼의餘裕도업시 破滅한地境에至하엿스니 엇지暗暗하지 안흘것인가 吾等은오즉絕望만感하고 血淚만흘릴뿐이다

◇校舍不足으로因하야 民衆의喪蹈이 沸騰한지久하엿스나 當局者는泰然自若하고 兒童의絕叫가 衝天에至하엿스나 袖手傍觀하고 校舍新築問題는 念頭에도 두지안는現狀이니 如斯한爲政者는 朝鮮에서밧게는 볼수업는일이라하겟다

◇若干의物質이許諾하야 學하려는者도 校舍不足으로 學치못하는者 多한現狀이니 物質의困窮으로 學치못하는者를 合하면果然不知其數일것이다

◇이만하면 朝鮮兒童의將來를 可히推測할수잇슬것이며 現在의處地를 可憐히消滅할수잇슬것이라하겟다 이것이朝鮮의第二世國民의處地다

◇朝鮮의第二世國民! 그들은亡하야 滅亡할수밧게업슬가? 우리는 그들에게 物質은 勿論 智識조차도 與치못하게되엿다 우리는이만큼모든것이 흔들리는地盤上에立하여잇다

◇오즉그들은 肉體만가지고 大地上에 남어잇슬것이다! 可憐한 朝鮮의兒童이여! 그들의 蘇生할活路는 果然어듸메인고? (崔生)

第三回元山市民陸上競技大會

時日 五月九日上午九時
場所 元山第二公立普校庭
申請期日 五月五日正午까지
申請場所 元山靑年會
競技種目 (追後發表)
主催 元山體育會 元山靑年會、元山市榮會
後援 時代、朝鮮、兩支局

関한件 一、宋乃浩出監歡迎에關한件 一、讀書會에關한件(決議案全部削除당한것)(長興)

●店員相助總會 平壤店員相助會에서는지난十八日當地會館內에서第二回定期總會를開하고經過報告 規約改正 任員選擧 新規事件等을討議하엿다는데決議事項及新任員은左와如하다고

△決議

一、會務整理의件 一、運動方針의件 一、月例會開催의件

△委員

崔鎬周 徐元俊 安永俊 李德山 金亨植 (平壤)

●禮山消防春季大運動 四月十八日午後一時부터禮山消防隊에서春季大運動을禮山에잇는忠淸南道公立農業學校運動場에서開催하야自轉車競走及徒走脚戱等各種의運動을擧行하엿다고(禮山)

●淡山支部創立 旣報한바慶北尙州勞働靑年會淡山支會創立總會는去十六日로延期開催하고左記委員을選擧하얏다고

金鍾昊 朴圭洙 孫有得

●全靑委員會 全州靑年會에서는去十七日同會館內에서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諸事項을決議하엿다고(全州)

△決議

一、메—데—에關한件 二、全北靑年聯盟에關한件 三、勞働夜學에關한件 三、全北靑年聯盟定期大會出席代議員選出의件(申時涵 林澤龍) 四、春期遠足會開催의件(時日은五月二日로準備는體育部에一任) 五、定例委員會日에關한件(來週부터土曜日로變更)

◇郭山天道敎少年會定總 平北郭山天道敎少年會第五回定期總會는去十日同敎堂內에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고

△決議

一、五月一日어린이데—를盛大히祝賀할것 一、普通學校入學못한少年少女를爲하야午後夜學을設할것

△委員

事務金仁弘 學習卓希伯 布德朴敗成 財務朴敗三 會計李運鎬 遊藝吳萬金 □□ 監督金文國 女子布德金福女 學習金玉女 遊樂金仁姬 慰悅吳淑女(郭山)

◇參禮消組遠足 去十八日全州郡參禮里消防組合에서는自然을玩賞하고古蹟을探索하기爲하야忠淸南道論山郡灌燭寺를目的地로하고參禮驛發午前八時車로發程하얏다고(參禮)

地方人事

▲朴永煥氏(本社奉天支局記者)는奉天勞働學院의事務를帶하고安城에서滯在中良好한成績을得하고또十八日天安方面에

◇寸鐵◇

【若木】 漆谷郡若木에代書業하는權某는面內貧民百餘戶에慈善事業으로戶稅二十餘圓을代納하엿다는데權氏의老親은行年七十에飢寒을못免한다고德望을讀成한後는悅親의道가足하겟지마는그동안은不徵其親이오而徽他人慈善界에傳染치나말앗스면

◇【義州】 水鎭面某敎會長老某는金某란不信者가술을먹고禮拜堂에와다하야『주먹』의洗禮를주어鮮血이淋漓하엿「고그長老의洗禮는참別하군!

◇【九龍浦】 九龍浦、浦項間을橫行하며良家女子를誘引하던楊粉述(長春市梅枝町)이란洋裝女는形跡이綻露되야方今浦項署에서取調를밧는中이라고

人夫罷業 金泉運送店 飢餓를不勝하야 其中幾人은就業

京釜線金泉驛『丸』運送店人夫十三名은賃金을前과가티올여달라고同盟休業을하얏다는데其詳細를聞한則昨年三月까지一個月賃金으로一人當三十八圓이든것을昨年四月부터三十五圓으로減하야不平과不滿이多大하든中慶北線이또잇서서勞役은만하지고人夫는增加치아니함으로三十五圓으로는生活할수업다하야一個月賃金을前과가티올여달라고同盟休業을하엿스나團結이잘못되고一週日行한後十六日에는糊口할길이업서其中三名만就業하리라하며其

00018590

海州勞聯 創立完成 書面大會大成功

海州新聞配達組合發起로去六日海州靑年會館에서開催하라든海州勞働聯盟創立大會가警察當局의壓迫으로不得已書面으로써規約을通過하고任員選擧의權利를該組合에一任하야創立키로하얏다함은旣報한바이어니와이미各團體로부터承諾書가來到하야去十七日上午十時부터南本町海州靑年會館에서配達組合臨時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金德泳君의司會下에各團體로부터드러온規約案承諾書를開札케된바全數로通過되야드듸여此規約에依하야海州勞働聯盟은이로써創立의形式을밟기로決定하고拍手로의祝意를表한後이어執行委員을左와如히選擧하고第一回執行委員會가지도本組合으로부터責任을負하고四月十九日下午八時海州靑年會館에召集키로하얏는데海州勞働聯盟은일로써完全한組織이되얏다더라

△加盟團體

海州勞働同盟 印刷職工親睦會 便利職工親睦會 店員親睦會 新聞配達組合等五團體

△執行委員

金德泳 朴一 柳東哲 姜在寧 姜德煥 姜龍亨 姜俊根 魚 鎬 李 種 金鶴濤 張龍成 李寬浩 崔承林 李鋼琬 盧迪水

△檢査委員

金元淳 李根培 李 窒(海州)

端川에서 靑年聯盟發起 宗敎團體除外

咸南端川郡에서는去十五日當地新興靑年會主催로同會館內에靑年聯盟發起會를開催하고當地第三靑年會農友靑年會新興靑年會等諸代表가會合하야左記決議와準備委員選擧가잇섯다고

△決議

一、加盟團體에對하야宗敎團體는加盟치안키로할것 一、而聯盟單位로하지말고現實上必要한靑年團體로함

△委員氏名

李穆學 金秉瓚 崔基龍 金澤淳 康碩凡 權奉迪 李均 禹正會 李容熙 金南山 劉永哲(端川)

●배달靑年委員會 全南莞島郡所安面배달靑年會委員會는去十四日同會館에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고

△決議

一、메—데—에紀念에關한件 一、莞島靑聯會代議員出席에

●延草靑年委員會 去十一日巨濟島延草靑年會第五回臨時執行委員會에서는左記各項을決議하엿다고

△決議

一、會員新入에關한件二、會費收領에關한件三、巨濟雄辯大會에關한件四、社會運動者講話會에關한件五、會員制裁에關한件(巨濟)

●洪原靑聯大會延期 成南洪原靑年總聯盟定期大會는四月十九日이든바事情에依하야無期延期한다고(洪原)

●黃海道記者團委員會 黃海道記者團에서는第一回執行委員會를來廿日下午三時부터信川邑內에서開催케되리라고(海州)

◇中央共助組合現狀 中央共助組合은數年前부터彼州有志들이우리經濟가너무도衰弱하야집을切實히覺悟하고創立하야今日外지經營하야오는理想的金融機關인데近頃의狀態는如左

組合員數九〇二人 貸附口數二〇二〇 貸附金額一一、八三〇圓〇〇(牧山)

社告

一、支局의名稱 善山支局
一、支局의位置 善山郡邑內
一、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洪太植

右와如히支局을設置하얏사오니該管內에本報愛讀諸位는新聞購求及廣告申託等一切를卽接商議하시압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압

總務 趙鍾璐
記者 權益洙

朝鮮日報社 白
朝鮮日報善山支局 白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Apr. 20th, 1926.

ABDUCTION AND ABDICATION

The Outlook

I

In Asia the sensation at the moment is that ever so paltry an affair as a runaway nautch-girl Lord Reading, the Viceroy, should have compelled the Maharajah of Indore to abdicate his throne. Whatever rights may have been achieved by women in the provinces of India directly governed by the British Crown, no one hitherto has questioned the authority of a hereditary prince over the favorites of his palace, selected as his playthings, not for their birth, but for their beauty. For centuries such dancers have been petted, discarded, and, if convenient, caused to disappear, with no questions asked by the suzerain power, whether Mogul or British. Why, then, should the Viceroy turn squeamish over a sword cut across the fast fading cheek of Mumtaz Pegum?

The girl's story, however pathetic is common enough. Acquired by the Maharajah as an entertainer, she had borne a child. Enough that in the palace the child died and that the favorite, traveling with the Maharajah's suite, escaped at a railroad station and was received into the home of Bawla, a rich merchant of Bombay. If the Maharajah sought to recover the girl, what wonder? He was wounded in his pride. And the insult cut him to the quick.

譯文欄

位讓과 取와略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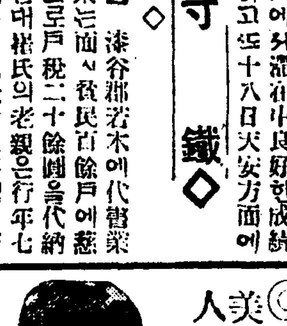
小 神經衰弱 レーベン 絕好良劑

岡田醫學博士推獎 本劑는 獨逸의 粹藥등 含有 良劑로서 直接 神經系統에 作用하야 其强壯과 恢復을 圖하며 全身的으로 健康强壯을 增進하는 新劑입니다 各藥店에서 販賣함

主效症狀…… 腦神經衰弱、神經過敏、頭痛、不眠、健忘、耳鳴、不逆上、記憶力減退、疲勞、焦慮、倦怠、陰萎、早漏、身體虛弱

價 …… 一圓五十錢 三圓

東京市 …… 大阪天王寺 中南定太郞藥房



◎艶麗花와如한 美人 裸體寫眞!!

◎絕世의美人이몸에一絲도附치안한 眞裸體寫眞을 美麗한肉體의 曲線美는 實로 絕品

近世의珍寫眞이올시다 藝術의模範寫眞으로서特히一千部에限하엿사오니 實費로 切迫되기前에 速키申込하시요

◎代金引換은 一切手代用不可

六枚一組 特價八十錢

振替東京六二一一番 東京京橋西紺屋町六 三光社

新事業

今回事業部를擴張하고新事業을設하야各地에最適當한不景氣에도確實히利益이有한永續事業으로本副業에適當하고簡單한事業婦人兒童도容易製品永久買受할新事業을紹介함

大阪市浦江町五〇九 ミヤコ合資會社 電話土佐堀二八六七番

本人의四寸妓浩는性本浮浪悖惡하야昨年에自己의五寸侄婦를敎唆하야自己의伯父即同侄婦의總祖父를被告로土地請求訴訟을提起하얏다가敗訴하고今又自己의八寸되는浮浪者를煽動하야其父倧晩을被告로土地請求訴訟을提起하고門中各人의財産을詐取코자百般運動하오니內外國人은勿見欺하소셔

水原郡雨汀面花樹里 四寸兄 宋建浩
水原郡雨汀面花樹里 宋氏門長 宋鋼晩

▼당신의근심이되는 月經 停止、不順의專門藥

月經停止不順으로逆上頭痛肢冷、飲食을먹으면가슴에체하며消化不良되기쉬운病이면 이르는며時的으로 等에대단히좃슴니다 ● 강경구(强經球)는 月經不順에 特效藥입니다

一圓五十錢 (六) 東京市淺草區 森田屋本店 振替東京二五〇三六番

患候는別無加減
아즉도차도가업스시다
十九日午後五時 李王職發表

창덕궁(昌德宮)왕뎐하환후에대하야 십구일 오후다섯시에리왕직에서 발표한것은 다음과가트며 일반어용태도 별로히변하심이업다더라

御脈搏 九二
御體溫 三六、一
御呼吸 一八

永興에大火
전부구호를소실

함남(咸南)영흥읍내남산리(永興邑內南山里)에서는십칠일오후네시반경에갑작이불이이러나서 영흥경찰서홍인면사무소(洪仁面事務所)와소방조(消防組)에서는 진화에로력하엿스나 때마츰서북풍이 몹시부러 사정업는불은 오후여섯시까지 계속하야 칠호전소 반소륙호를내이고 마럿다는데 불난원인과손해액은자세히알수업스나피해자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영흥)

白麟洙 吳承祚 趙翊 張爽 孟承植 宋宅翊 湯成燦 (以上全燒)
乃賢 申顯善 孟永云 (以上半燒)

日艦管絃樂團
市內에서奏樂
금이십일오후에

일전부터 인천(仁川)에 정박중이든 일본 뎨이함대(第二艦隊)에서는 이십일오후한시와 동여덜시의 두차례로난우어 경성부영(府營)악당은마당에서해군악대(海軍樂隊)를 주악하리라며 동오후네시에는 룡산(龍山) 소학교에서할터이라더라

獎忠壇線電車는
二十一日頃에開通
아즉와이야설을가설중

얼마전부터공사에착수하야든장충단(獎忠壇)의 뎐차선로는 그동안거의준공이되야 이십일일경부터는개통하리라는데이에대하야경성뎐긔회사무자(武者)던두는말하되

『물어보시지안어도 차차앗시겟이갓가와 옴으로 시민의교통이멋십칠이나는게되야큰한것으로말하면 한초(秒)가밧붐니다만은아모리거의다되엿다하여도 아즉『와이야』선(線)이다되지못하엿고또그것이다되야시운뎐을한다하여도 텰도국(鐵道局)의인가를어더야하는것임으로이십일일에는되도록『와이야』선을준공토록하고 한편으로 텰도국의인가를어더 이십일일부터는 개통이못되면 시운뎐이라도하고자합니다』하더라

海軍思想講演 지난십팔일일본뎨일함대(第一艦隊)가인천항(仁川港)에입항한것을 긔회삼아시내일본인 학교와 그외조선인학교에서 해군 사상보급(海軍思想普及)에 대하야 강연회를개최한다는데 조선사람의학교와시간은 아래와갓다더라

京城女子普通學校 二十一日 午後二時半
壽松洞普通學校 二十一日 午後一時
校洞普通學校 二十一日午後 二時半
於義洞普通學校 二十一日午 後一時
京城商業學校 二十一日午後 一時

◇십팔일 본사를 견학한 광명청년회야학부학생◇

有志의同情으로
教科書寄贈
례산농업교생도에게

충청남도 례산군례산면 향천리(忠南禮山郡禮山面香泉里)한춘근(韓春根)(三三)은출생한지세살뻐에그의부친을여히고그의편모를모시고지내오든중가세가극빈하야 공부할길이업서 주야로그의편모의애를태든중당시호서은행영업과장리정진(湖西銀行營業課長李正鎭)씨가 그의정상을 몹시 생각하야 학비를대주어 보통학교를우등으로 졸업하엿스나 불행히 권긔리정진씨가타처로 뎐근이되매 학비를대여줄사람이업서젓슴으로향상려정하야오든바례산예수교목사한례유(韓鄭裕)씨의보조로작년에 충남농업학교에입학하엿스나 불과얼마아니되는 이십원의교과서(教科書)갑시 업서서 곤란을하게되엿슴으로 본보례산지국(本報禮山支局)에서 사내각유지의 의연을바다가지고 교과서를구입하야 권긔한춘근(韓春根)에게긔증(寄贈)하엿더라(례산)

松林中에
嬰兒屍
산채로내버린것이 비에숨막혀죽은듯

십구일 오전열시반경에 시외청량리(淸涼里)뎐차선로부근송림속에서 지나가든 행인이생산한지 약일주일가량밧게 아니되는 어린아이의 시톄를 보자기에싸서 무든것을발견하고 부근파출소에 계출하얏슴으로 소관동대문경찰서에서는 즉시 경관과의사가현장에 달려가서 검시한결과약삼십칠일전에산채로버린것이 모래가덥혀 숨이막혀 죽은것이 판명되얏는데 불의(不義)의 관계로나흔것인지 또는생활난으로그리한것인지 자세히알수는업스나 엇더튼 범인은그근처에 잇는듯함으로 동서에서는 범인수사에 매우로력한다더라

仁川警察의大失態
留置中犯人五名破壁脫走
새벽한시의고요한틈을타서다라낫스나 결국네명은다시붓들리고한명만다라나
木偶와如한當夜의守直巡査

십구일 오전령시반경에인천(仁川)경찰서에서는 비번서원을비상소집하여가지고 적막한 새벽공긔를흔들어깨트리며 대활동을하얏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듯건대 동서류치장에 류치중이든 도범인 네명과 상해범인한명이 공모하고 류치장순사의 조는틈을타서 뒤벽을헐고 도주하엿슴으로 그것을 체포키위하야그리한결과 네명은 다시체포하고 한명은 아즉까지체포치못하엿다더라(인천)

향하는 눈물을 금치 못하야 여러 동무로 부러 가터이날을 슬펴하자는 의미로 이십오일하오한시부터 남본정 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이주년추도식을 그동무들이 모혀 신흥소년회(新興少年會)와 청년회소년부(靑年會少年部)의 주최로 개회하게되리라는바 여러 동무들은 당일에 만히참석하야 주기를바란다더라(해주)

仁川에窃盜頻頻
백주범행도만타

지난십이일 오후한시경에 수상스러운자가 못다리를가지고 인천부금곡리(仁川府金谷里)로상으로 지나감을 행순하든순사가 붓잡어취됴하여본결과그는본적을고양군신도면화자리(高陽郡神道面化子里) 일백륙십칠번디에두고방금인천금곡리(金谷里)심사번디 김찬오(金讚五)(三三)방에 두류하는 뎡춘봉(鄭春鳳)(三三)인바 날마다인천시내각처로 출몰(出沒)하야 사십일건(四十一件)이나 절도질을하다가그와가티 경찰의손에 톄포된것이라더라(인천)

人妻爭奪戰
남편은중상 두명은피소

안악군 대원면봉성리(安岳郡大遠面鳳城里)김승훈(金勝勳)(?)은그동리라정모(羅貞模)(?)와 류승렬(柳承烈)(?)을 안악경찰서에 일주간 진단서를 쳠부하야 고소를뎨출하엿는데 권긔김승훈은 슬하에 자식이업슴으로 어더지금까지 화평하게사라왓스나 지난유력 이월에 류승렬이가 어데로 종적을감추엇슴으로 김승훈은 사방으로탐문하며류승렬이 잇는곳을 차저 신천군 로월면우산리(信川郡蘆月面牛山里)황인호(黃仁鎬)의 집에 권긔두사람이 숨어잇슴을 발견하고 김승훈이가 라정모에게 남의처를 함부로 빼아서가는 야한죽 그는김승훈을 무수란타하야이가티 중상을 내게한것이라더라(안악)

西門署管內에
天然痘發生!
환자는일본인소년으로 곳순화원에수용하얏다
市民은急速히種痘하라

시내뎡동(貞洞)이십팔번디소천등길랑(小川藤吉郎)(一四)은지난십삼일부터 텬연두의사증(天然痘疑似症)에걸리여 신음하는것을지난십팔일에 의사의 진단을바든결과 진정한 텬연두로판명되엿슴으로 소관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즉시병인을순화병원(順化病院)에 수용하고 일대소독을하는동시에 각처에 수배를하야 엄중히 방역중인데 이에대하야 당서위생계 주임(主任)은 말하기를이환자는 얼마전에 정읍으로부터 입경한자로서 지금정읍일대에는 약오십여명의 환자가잇서 경긔도관내에서도 상당히 주의를하여오던터에 이가티 발생하엿슴으로 더욱만연할지도 모르겟스니 일반은 종두를 속히 너어주기를 바란다고말하더라

少女溺水慘死
웅덩이에서나물캐다가 들에빠져죽어

경긔도 리천군청미면송산리(京畿道利川郡淸渼面松山里) 김평심의딸 김금옥(金今玉)(六)은지난십륙일 오전십일시경에 마을압들가운데잇는 웅덩이에 빠져 무참이 죽엇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뎐말을듯건대 권긔김금옥은 아츰에 나물을캐러간다하고 바구니를 가지고나간후 점심때가 지도록 오지 안흠으로 그의어머니가 사방으로 찻다가오후두시경에야 권긔웅덩이에서 시톄를 발견하엿다더라(장호원)

눈물겨운!
龍塘浦遭難生二週追悼
이십오일해주어린이들이

지금으로부터 이년전 사월이십오일은 당시에 만흔사람의눈물을 자아내던해주학생(海州學生)칠십여인을 룡당포에 장사지내이든 참국이잇든날이라 이러구러 벌서이주년이된 오날을당하게되야 그동무와서로 책상을한가지하고 심지어침곰까지라도 한가지하든 동무소년들은 이날을 당하야 다시금 도라간 동무에

背夫逃走女
중국관헌에게톄포

원적을 함북경성(咸北鏡城)에 두고 방금간도 연길현연보산석마동(間島延吉縣煙寶山石磨洞)에사는 리춘백(李春伯)(三三)의 안해김옥순(金玉順)(二六)은작년십월경에 권긔리춘백과 결혼한

그내용을 보이지아니하

博川에時局强盜
범인은즉시톄포되엇다

박천군청룡면용봉동(博川郡靑龍面龍鳳洞) 장상의(張相義)는 지난삼월 삼십일일 오전한시에 동면농동서흥승(徐興承)의집에 침입하야 말하기를 우리는신정부사람이니 돈을내라고 협박을하야 현금십원을 강탈도주하얏다는데 이소식을들은박천서(博川署)에서는 즉시 활동을하야 범인을톄포취됴중이라더라(박천)

술집에서
국자가(局子街)에사는 뎡해산(鄭海山)이란 남자와 술을먹어가며 꽃가튼정담을 나누다가 싀부에게들킨것

이동리가되여 이래동거하야 왓스나 그품행에 아름답지못한 협의가잇서 싀집식구들은 항상경계를 엄중히 하며 남편춘백도 자조책망을하야오던중 지난삼월에도 로두(老頭溝)장거리엇던 이에 일대풍파가 일어나가지고 하얏섯던바 그날 춘백이가외지하 순의 세간을 수색한결과 해산의 명함과 또한어느날보처에서 맛나자는 밀서를 발견하얏스며 다시 만단설화의 그림는정찰外지 뒤여나오매 김옥순은

일반은
자긔의실책은생각지안코 직문하는사람 에게다 무례히 한다고 일반군중은흥분

권긔극장에서 여흥하는중 일대풍파가 잇섯다는 것은 다시 연극을계속하든가 그순사가 일반에게 사과를하라 고 풍파를 이르킴으로 단중 일행은 그순사에게 시간의여유를달라하엿스나 공무를 위반하

清津劇場에一風波
순사의사과로무사해결

십륙일밤 십이시경에 함북청진(淸津)신암동에잇는 공락관(共樂館)에서는 취성좌(聚星座)일행이 흥행을하는중에 림검하엿든순사와 관람자간에 약한시간동안이나 일대풍파가 잇섯다는데 원인은 시간이 지낫다고순사가 부지불각에 호각을부는고로 연문을 모르는흥행하든단중에서는 엇절수업시 막을다덧다 보고 단중에 한사람은 이광경을 관람하든중 행중에 막을닷느냐고 질문을하는데 림검하엿든 박순사는그사람한태 달려들어 너는일반군중에게다 선동을식히는 자가아니냐고폭행을함으로관람하든

면 명치뎐황의명일을 위반하는 것임으로 될수업다고하며 무대에올다서 일반에게 머리를숙여 잘못하엿스니 일반은 해산하여 고사과를함으로도 일반은 해산하엿다더라(청진)

仁川에路上屍
집을진채죽엇다고

지난십팔일 오전여섯시경에 인천부외리(仁川府外里)사거리로상에서 엇던사람한아이 조고만 보짐을진채 부칭히 죽엇다는데 그는 충청남도 서산군근흥면도 황리원안파(瑞山郡近興面都項里元安坡)팔백오십륙번디 최중권(崔仲權)(四一)으로나날이 생활에쪼김을 면치못하야 할수업시 피눈물을 정든고장에 최후로남겨두고 북으로도회망의길을 차저 지난십칠일밤에 인천에 도착하엿섯스나 밤이새이도록 몸부칠 곳을 찻지못하야방황하다가 그와가티 피로한몸에 과진하야 혹히 객사를 한것이라더라(인천)

六百餘洞民의
生命財産이달린陳情書
일개일본인의사의위하야 말소하라고매일강청위협
奇怪한寧海駐在所의强壓的態度

영덕군영해면뎡동(盈德郡寧海面貞洞) 민대표김병순(金秉順) 김경도(金敬道)외 사십여명은 영덕군령과 경찰서에 등장을 갓다가 마츰 군수와경찰서장이 잇지아니함으로 탄원서(歎願書)만데출하고 돌아온 사실이잇섯는바 그내막이라 가 위래형으로 그뒤에들니 보는(洑)를막아논방흰함을면코거치 나 디질이 모래임으로도 안궈처 못하야큰홍반지면전동민이목숨을걸어노코 몰막기에 골몰하게 되는터인데 영해읍에 현주하는

일본인 광본청오(光本淸吾)소천영길(小川榮吉) 두사람이국유미간디(國有未墾地)인그동리압듸 뱃십여평보를 사가지고돈 큰맨들계획으로바도그동리뒷내의중앙에다 석자이상의보를 쌋코록 녀여명의목숨을달고잇는 뒤밧친록한가운데둔허서흙을 대일데덤으로모든수속을진행하는한편에 경북도텽기수까지 나

려와서 실디측량까지 하야갓슴으로 작년구월에도 경북도지사 (道知事)와 영덕군수에게 탄원서를데출하고 교섭위원(交涉委員)까지보낸후 그후에여러번 군수도 고잇든중 그후에여러번 군수도 출장하야 승락하라고 권하는것을못지 안엇스며 지나간 아월십팔일에는 영해주재소(寧海駐在所)에서동민(洞民)

칠팔인 을 호출하지하야 보만드는동의서(作洑同意書)에 도장을찍으라고강청하나듯지아 니하매나종에는유치,혹은구타 까지하엿슴으로 그는분하고 억울함을 진정코자 총독부사무관도 지사군수 경찰서장에게까지 진정서를 보내엿는바 권긔일본닌 두사람은보(洑)가곳될터이니 간소리말고 수속하라고하며 몽위가분눈 위협중이라더라(영덕)

◇安城火災 지난 십륙일 오전구시반경에 경긔도 안성군 읍내면서리(安城郡邑內面西里)

三百圓을주고
本夫와離婚
임반는그의행동을타매

요자이상긔(李相基)에는인처매매(人妻賣買)사건이 잇다하야 간 곳마다 수군거리며 몰의가분분 한중인데 이제 그사실의진상을 알아보면 동긔동 삼백오십일번 디(新興里三百五十一)에서주상엽업하든 리중하(李宗河)와 처권리옥(全種玉)(?)은 거륨 칠월변경

疑問의小兒屍
동리압제방에

경긔도 장호원(京畿道長湖院) 압제방(堤坊)에서는 지난십륙일 오후세시경에 무든지이주일가량되는 어린아이의 시톄를 발견하엿다는바 본래이데방은 장호원시와 여러일반아니라 교통이 빈번한곳으로 깁히 뚤 촌을 채굴파고 난지 얼마가 되는 아이를 이와가튼곳 에뭇음은음부탕녀(淫婦蕩女)의 짓이라하야 일반은 의론ㅣ분분 하다는데 소관주재소 에서는범 인수색에 로력중이라고(장호원)

할사람이
업서서관광하

던사람들도일시민망중에잇든바 마츰사망한정씨는예수를미덧슴으로교인일반이압고빈집을어더 시톄를운반한후그손자리석희의 도라오기를기다려서장례(葬禮)를 거행하엿다는데 그소임자는 동면금오동(金五洞)에거주하는 림명긔(林明基)란 자로 방금소 관서에서취됴중이라더라(삭주)

松禾에甘雨 황해도송화

군(黃海道松禾郡)부근일대에는 지난십칠일 오전세시경부터 비가나리며 오래동안 한울을바라 보고 비를기다리든 농민들은매 우깃버한다고(송화)

사실여부

들부러보지도 안코 네가나아들머리를 깍것다 지하며일척이넘는식도를가지고 와서권병숙의엽구리를찔럿슴으 로순창읍내 해동병원(海東病院)

아들斷髮勸誘햇다고
食刀로刺傷
아들을단발식혓다고 식도로란자하야중상
被害者는生命危篤

전북순창군순창면가남리에사는 권병숙(全北淳昌郡淳昌面佳南里)權炳淑)이란청년은 지난유력 이월ㅣ십구일에 그처가 인천남곡성군입면 약천리정계현(谷城郡立面藥川里鄭季賢)의 혼인잔치에가서 여러친구들과 놀다가그동리정운영(鄭雲英)이란 친구들이 단발을 권유한결과본인도 정운 정운영(鄭雲英)이란 친구들은 즉시어머롤가서 단발을하 기고왓든바 정운영의부친 정봉숙(鄭鳳淑)은엇가주지도아니하고 엇는데 보지도못한 권병숙에게 달려와서

에입원하야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아즉생사를 알수가업다더라

의뢰하얏 더니팔빌오후

구시경에 옥순은국자가 뎡거장에서 중국관헌에게 붓들녀취됴 를밧는중이라더라(간도동흥사)

春風千里(一)
東萊에서 安民世

人生은觀傷百年에니라고 歎中에서 欲嘆한者가잇다 百年間이반드시 人生生活의極致는아니겟지마는 旣車밧가러 奔忙한 生涯는이를苦惡 漢陽의春色도 玩賞할날이업섯나 昨昨年가튼 해는 有名하다는昌慶苑의 櫻花조차 充分히 玩賞할機會를이업시지낫섯다 이제 馬山行의機會로써 春風千里 南國의花信을 向하게된것은 浮生分外의閑暇이라할가? 南原가는 李道令의行色은아니지마는 夜渡漢江水하는 旅行의途次에는 消息의春色을 엿볼수가업섯다 鄕第에 滯在하는 一日 墳墓에省하야 釜釜한 老姑草(할미꼿)를보앗고 桃花杏花等은아즉꼿망우리가 터저보려하는즐이엇셧다 다시 京釜線車中의사람이되니 刻刻

으로接近되는南國의春色은안저서山水의妙境에노는늣하게한다 日淸戰役의戰所도엇던人印象니엇서鐵路를바라보는數株의櫻樹를보지아니한戰歡의附近에서는벌보앗다 俗諺에나오는天安三巨里능수버들을생각한다 芙江에 오니寂寂한村落에杏花가滿開하엿고 葦夾花는더욱한참니다 葦夾花落杏花開라는漢詩가잇거니와 두가지꼿니一時에滿開한것은자미잇다 葦夾花를俗名에『개나리』라하니 『나리』는百合의俗名이오『개나리』는 似百合의俗語니라 이로써歐語『캐나리』의 音化語로생각하는이가잇는것은잘못일것이다 葦夾가一은 球根植物이오 一은灌木이지마는 꼿이同科에屬한故로 이러한名稱을지은것이다 新灘江頭에서頭巾을沙工이狹長한木船에다가 四五의白衣男女를실고 淸碧한江水를건느려하는것을보며 무른녹은詩趣

에잠기려하엿다 그러나그것이 人生行路 알수업는前途 象徵하는가생각하면杳然한悲感 形容할길업다 太田驛을지나四圍에솟는山形을바라보며 한참北嶽연氣分을도도는中에 樵夫가小童으로더부러 路傍에서쉬니는데樵夫에는 마른풀니한짐니오 엇허는杓杓한杜鵑花가 한목굼니다 深川外지가서絶勝의처음이다 滿開한杜鵑花는예서한마디에때달여잇는杜鵑花를보앗 消遙一帶에다시盛開한杜鵑花를차줄수업섯다 吾人은꼿을사랑한다 그러나엿기를즐기지안는다 꼿은봄의小慧이오生命의標幟니다 食花蜂蝶이 말이잇거니와 꼿에食내는것은蜂蝶이아닐것니다 무릇生命을가지고生命을讚許하는者 누구든지 꼿을조하할것이다 그러나꼿처럼여맛나 피인꼿을한손으로꺽거버리는것은 殘酷의甚한者이다 꼿을사랑할진대 차

라리그庭園에나 村落에옴겨심어둘것이오 그힘이업스면 차라리두고볼것니다 꼿을 하는것을鮮明한芳香을取하라 그風情에도 더욱힘수업는일니다 鷄林과 盛開한 淡泊한 꼿을 비 가는 며시드른뒤에 無數한 貧者 꼿가을升楓 지나 한다 발식엿가 리된 ... 면, 愛惜하기 작이업는 秋風嶺을넘는다 一帶山脈 鐵路棧道한데北流하는淸水는 히려 滿滿한氣勢를 보 風嶺은京釜線中最高한 地點 두엇다 白頭의正幹이 山에 미처서 逆行하야 湖南과 錦北의 山脈을이두엇고 車嶺으로부터 南走한山脈은湖南一帶 니 秋風嶺는 畿湖 의 行하는湖西地帶 이다 昔者 鄭湖 이 役에는 黑田長政이 日本의 一路 ... 울거느리고 秋風嶺을 지나 淸州 竹 山等地를거처北上하니 吾人 歌 群子의頭腦에는이러한印象이 數 에마다 솟어줄수업다 朝鮮의 氣 候가秋風嶺을分界로삼어南北이

鎭異한바잇거니와 秋風以北에는北流하는淸水를보고秋風이南에는 남流하는것도매우興味잇는現象니다 秋風嶺을넘어南下하는 途中 直指寺다하는山間에서 盛開한葦夾花를中에파뭇처잇는 新人心見性成佛이라는文句를 發見하거니와 鐵路가의山川 의淨土 直指寺의妙境을 차저볼 수업는것니 못내섭섭한일이다 櫻花를보겟다 이것니南國春色 의第一步이라할것이다 櫻花에 關하야는 近代에 이르러 비롯오 盛開 象徵에 盛한니 ... 의州과 鷄林 石窟의 遺跡 다여나는길에 뒤도 돌아보니 金泉 衣白山의 漂 ... 의 하얀명이소리가 한참니오 마슴 한 一 雨白 沙의우 에는 漂泊하는 白衣 布와 白線이그런 이 보힌다 大新隊 노지나니 午後 에下學한 學童들이 손마다한다 발식의 杜鵑花를고줄거운듯 이 짓거리며 돌아가는 樣이 매우 마음 을깃부게한다

소곰비不注意로
八十老婆가橫死
소임자는인치취됴중

삭주군삭주면서부동(朔州郡朔州面西部洞) 의 박계창(朴桂成)의 외국(外國)에 하든리석희(李碩熙)의조모장씨(張氏)는 지난십사일 오전십시경에 부근엇던집 집것방에잇스며 몬동으로 생활을 하든중 휴게(休憩)하든중 집실은소와충돌(衝突)이 생겨서 권긔 장씨는 소관경찰서에서는 교량(橋梁)에서 떠려지서 드는참어 사망하엿다는데 소관경찰서에서는 압멍경부 보이하(若永德部補)이하 순사 사오인이 공의(公醫)를동반하 고현장에출장하얏다는데 씨의손 지(孫子)부부가 모다출타하고 업습으로도시톄를수습

에 그의남편을 떠다고향인함남 북청(咸南北靑)에서 떠나 이곳 에와서 술을팔며 지내던바지금 으로부터 삼사년전부터 이곳본 뎡(本町)에 잇는 김영찬(金泳 讚)이란사람과은근한관계가잇 슴후부터 정정본남편을 배척하 기시작하야 그동안 적지안흔풍 파까지 일으켜오든바 수월전에 권긔 리종하가본뎡디에 다니려 간후 권긔옥은 토디(土地)판돈 과그외에 여간한시재를 모다어 대다가 엇더케하엿는지? 본부 가도라와서 돈을내노흐다하루 그동안보다소비(消費)하엿나하

며본부를 배척하는 긔세가날로 농후하여가다가 마츰내 그는남 편에게대하야 리혼을 강청하며 만일 자긔의소원과가티리혼을 하여주면 뎍당히돈을주겟다는하 으도 본부는그의마음이 도뎌히 만회되기 어려운줄알고 즉시리 혼게약서를하여주엇든바권리옥 은 곳권긔김영찬에게가서 현금 삼백원을갓다가 본부인 리종하 에게준후 십수년이나 가티살든 본부와 또한그들사이에서 생겨 난열살먹은 아들자식까지단연 히 떼여바린후 집을나와버린것 이라는데 그녀자의 행동에대하 야 일반의정부(情夫)김연찬과 살기위하야 본부를 리혼하다는 수단으로 그러한간계를 쓴것인 듯하다하며 권긔권리옥의 의리 업는행동에 분개하는사람이 만 타더라(홍긔)

遮湖近海에서
帆船一隻難破
폭풍을맛나죽게된것을 어선의구조로사러왓다
九死一生의船夫六名

함남신창항(咸南新昌港)에재적한 삼디창성한석권(韓錫權)의배에 인천이창협(李昌協)의배에 선창 항소삼복재 승창권(小森木材出張店)에서 텰도용뎐주(鐵道用電柱)슈백본을실고 지난 십삼일오전네시경에 원산 항구를 발한후 볼과두시가 못되여 별안간에 난대업는대폭풍이 습래하야그중에 먼저행선한 한석권의 배는 무사히목덕디인 리원군천 항에 도달하엿스나 권긔리창청의 배는 무참히 풍과에 배되도 구가모다붙어저서실은뎐주는해 중에 쏘려너케되엿스며 한배에 선인(船人)삼인식올랏스나풍과에 배는편편히 깨쳣슴으로엇절 수업시 해중에 잠사하게되엿든 바마츰북재갈을배에 의지하야안으 로 표류하야갈 지음에 차호포 (遮湖浦) 어선들이 나갓다가마 참반나서 그들의 생명을구조하 엿다는데 그고생하든 선부의말 을드르면 참말 구사일생 이엇더 라(리원)

가로에서 파손된금권와 동권 원유는가 흑속에무친것을 발견 하야됴사한후 본인에게로 환부 하고따라서 범인수색에 진력중 이라더다(평택)

盈德에는山火
삼일동안연소

경북영덕군영해면대동(慶北盈德郡寧海面大洞)뒤 맹동산(孟冬山) 과지품면도계동(知品面道溪洞) 뒤에잇는 다목대부산(多木岱附山)에서는 지난십삼일부터불이 붓기시작하야 꺼지지안코 삼일을 계속하엿다는데 불난곳은약 양(?)에서 영덕까지 왓다하며 소실면적은약십오뎡보(十五町步)가량이나된다더라(영덕)

振威邑에
金庫窃盜
현금백여원든 금고를훔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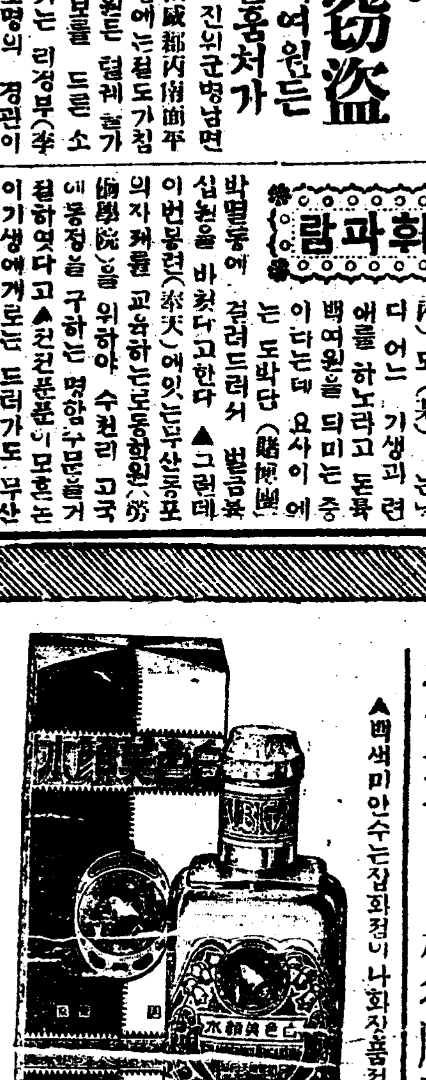
지난 십칠일밤에 진위군병남면평택리황녹정(振威郡丙南面平澤里黃綠亭)상뎜에는철도가침입하야 현금백여원든 텰궤를가저갓나는데 이금보를 드른소관 경찰서 에서는 리경부(李警部)이하 사오명의 경관이 출장하야 도사한 후 범인수색에 노력하는중 십팔일 오후한시경에 큰거리십오뎡가량되는 안청

今日의種痘 二十日

場所 東大門女子普通學校 昌信洞▲崇仁洞▲鍾路五丁目 同六丁目

휘파람

▲안청읍내(安城邑內)모(某)는 나 디어느 기생과련애를 하노라고 돈륙백여원을 되미는중 이다는데 요사이에는 도박단(賭博團)에 걸려드러서 벌금륙십원을 바쳣다고한다 ▲그런데 박멸통에 이번봉텬(奉天)에잇는무산통포의자제를 교육하는도동학원(道東學院)을 위하야 수천리 고국에 동정을 구하는 명함수문을거절하엿다고▲긘권푼푼이모흔는 이기생에게로는 드려가도 무산학생을 위하야는 한푼도출수업는모양인지 ▲생각나 그런이든가?



곳아름다운
얼골이되는
백색미안수
白色美顔水
도곡화장품연구소
창제의…신식백분
▲이분으로화장하시는분은누구나말할수업는아름다운얼골이되심니다
▲동경이나대판에서는상중류부인들에게이분이만히류행하는중임니다
연분이절대로업는안전한신식백분
▲뎃날분은연독의무서운것을최근의과학으로잘알게되엿습니다
▲백색미안수는내무성위생시험소에서도무연백분으로증명되엿슴니다